

운명을 못 이긴 사람

The Man Who Was Defeated by Fate

마태복음 26:24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7월 28일 설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를 위한 변명

가롯 유다는 예수님 열두 제자의 하나로 스승인 예수를 판 사람입니다. 성경은 처음 열두 사도를 소개할 때부터 유다 이름 뒤에는 “예수를 판 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 10:4; 막 3:19; 눅 6:16; 요 6:71). 예수께서 잡히시는 과정을 설명할 때도 사복음서 모두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썼습니다 (마 26:14; 막 14:10-11; 눅 22:3-6; 요 13:2; 18:1-5) 우선 대제사장들을 몰래 만나 은 삼십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 가운데 하나가 당신을 팔 것이라 하시자 유다가 그 자리에서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겿세마네 동산으로 왔고 예수께서는 거기서 체포되신 다음 십자가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를 판 직후 유다는 때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은 삼십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못받겠다 하자 그 돈을 성전 성소에 던져버리고 목매 자살을 했습니다 (마 27:3-5).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뒤 시체가 떨어지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 합니다 (행 1:18). 제사장들은 유다의 돈이 피 값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다면서 그 돈으로 땅을 구입해 임자 없는 시신을 묻는 묘지로 썼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 27:6-10).

유다는 돈 몇 푼에 팔려 스승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스승도 보통 스승입니까? 온 인류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를 배신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한 구원, 곧 로마의 압제에서 건지는 그런 구원을 안 주었기 때문에 실망해서 배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뒤집어서,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유다를 두둔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판 게 잘 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래 전부터 있던 생각입니다. 기독교 초기 문서 가운데는 심지어 예수께서 유다한테 당신을 팔라고 비밀리에 지시하셨다는 것도 있습니다. 설령 돈에 탐이 나 배신한 거라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좋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다를 두둔한다면 유다보다 더 칭찬 들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지요? 빌라답니다. 기껏해야 매 좀 맞고 풀려날 사람을 실수에 실수를 거듭해 십자가에 사형을 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이 오랜 세월 준비하신 구원을 이루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 아닙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그저 제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쌍하지요. 이들이 처해 있을 운명을 생각한다면 눈물도 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일을 잘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예언

성경에 따르면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팔 사람으로 예정하신 것 같습니다. 유다 대신 다른 사도를 뽑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행 1:16). 유다가 예수를 배신할 것이라고 다윗이 쓴 시편에 이미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답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행 1:20; 시 69:25; 109:8). 유다라는 이름은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 천 년 전 다윗이 이미 예언했다는 말씀이지요.

유다가 예수를 판 대가로 받은 은 서른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샀는데 그것마저 성경에 나옵니다.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

신 바와 같으니라” (마 27:9-10; 속 11:14). 이걸 선지자 스가라가 오백 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다윗 예언도 그렇고 스가라 예언도 그렇고 이게 이 사건을 두고 한 말씀이라는 걸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한테 배웠겠지요. 제자들이 제 멋대로 갖다 붙인 것 아닙니다. 구약 이 말씀은 분명 예수를 판 사람에 대한 예언이 맞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당신을 팔 것이라 말씀하시고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요 13:18; 시 41:9). 제자 중 하나가 배반할 것이라고 천 년 전 다윗이 쓴 시에 예언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 17:12).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간 것이 성경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언

그런데 구약 예언은 이름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스승을 배반해 팔 건데 그 사람 거처는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돈으로는 발을 사게 될 거다, 하는 정도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예언을 두고 유다의 운명이라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꼭 유다일 필요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유다가 그 역할을 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름도 나옵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사람이 유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세우신 지 얼마 안 되어 예수께서는 당신이 생명의 양식이라 가르치셨는데 끝에 가서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풀이하기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했습니다 (요 6:64). 조금 뒤에는 아예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셨습니다 (요 6:70).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요 13:10-11).

예수께서는 유다가 당신을 팔 줄 아셨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열른 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 한 조각을 찢어 유다에게 주셨는데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 13:27).

예정과 의지

이쯤 되면 고민이 생깁니다. 구약성경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배반할 것이다 했다면 그게 유다일 필요도 없고 그러니 그 역할을 맡은 유다가 바보짓을 한 셈이지요. 스스로 저주의 길을 택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처음부터 유다가 그렇게 할 줄 알고 계셨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면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 하는 신학자 가운데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면 유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신학자가 틀렸습니다. 이거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고 우리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우리 머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둘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런데 현실 속에는 우리가 믿는 부모를 두었거나 친구나 애인을 잘 만났거나 아니면 과자를 좋아해 성탄절에 교회에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확실하게 아는 건 내가 믿었다는 겁니다. 믿고 난 다음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영터리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예정에 안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 영터리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도 안 나옵니다. 결론은 언제나 둘 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도 맞고 우리 의지도 맞습니다. 사건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예정하신 그게 우리 의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정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꼭두각시인 것도 아니고 우리 의지대로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결정에 좌우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유다의 책임

성경에 따르면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유다는 이길 수 없는 어떤 힘, 이를테면 운명 같은 것에 놀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지만 유다는 그 예언과 무관하게 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다 제 마음대로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가 사단의 조종을 받은 것 같은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눅 22:3). 언제 들어갔을까요?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 유다에게 주셨는데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 13:27). 조금 다른 표현도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 13:2).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볼 때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치 사탄 내지 마귀라 불리는 어떤 힘에 눌러 죄를 짓는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탄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럼 사탄이 시켜서 하는 짓이니까 내 책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불러들이면 내 주인이 되어 버리지만 사탄을 내 안으로 불러들이는 건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 결정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나를 취하게 만들고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을 제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술 주자 주님을 내 속에 모시는 건 내 결정입니다. 내가 마시지 않는 한 술은 절대 나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다가 사단을 제 안에 불러들였습니다.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단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두 주 전에 아나니아의 범죄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꾸중했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행 5:3). 사단을 마음 가득 모셨습니다. 사단 제가 그냥 들어온 거라면, 아나니아가 싫다 하는데도 강제로 쳐들어온 거라면, 아나니아가 꾸중을 들을 일이 아니지요. 아나니아 제가 모셔 들었기에, 온 마음을 다 사단에게 바쳤기에, 크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유다 마음에 넣었다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유다 몰래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것 아닙니다. 유다가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몰래 속여서 죄를 짓게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는 다 내 마음이 짓습니다.

유다가 한 일

유월절 전에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몰래 만났습니다. 예수를 넘겨주겠다는 제안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대가도 요구했고 대제사장들은 은 삼십을 주었습니다 (마 26:14-16). 그 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마 26:16; 막 14:11). 유월절이 되어 만찬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자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 겁니까? 그렇게 스승을 받들었으면 팔지도 않았겠지요. 준비해 온 일을 결행하기로, 사단을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했습니다. 사도들도 보선을 하기 전 기도하기를 “유다는 이를 버리우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했습니다 (행 1:25). 유다 제가 버렸지 누가 빼앗은 게 아닙니까.

유다가 돈에 팔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유다가 회계를 맡았습니다. 돈을 관리했는데 횡령을 일삼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 12:4-6). 은 삼십은 노예 한 사람을 사는 값입니다 (출 21:32). 주님이 노예 값에 팔리셨다는 뜻이 첫째입니다만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자신이 한 일하기에 책임도 제가 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눅 22:22).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가신다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에 대해서는 작정된 대로 저주를 받을 거라 하시지 않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지만 그 일을 직접 행한 책임은 유다가 집니다.

오늘 본문은 더 분명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 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 26:24).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을 이를 사람이 유다일지 아니면 다른 사람일지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일을 떠맡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안 태어나느니만 못한 그런 비참한 운명을 저 스스로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번번이 놓친 기회

전에 헤롯을 살필 때 또 아나니아 부부를 살필 때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결국 다 놓치고 만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유다를 보면서 똑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일찍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는 마귀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셨지만 유다는 그게 저인지 아직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전에 이미 대제사장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팔려고 분명히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다. 그런 다음 “너희가 다 깨끗한 건 아니다” 하셨습니다. 유다는 그 순간 알았겠지요. 바로 그 때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사람들을 만나 모의까지 했다고 주님 앞에 자백했더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만찬을 드시다가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는 “주님 접니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여쭙었습니다. 유다가 “랍비여, 내니이까?” 하자 예수께서 “네가 말했다” 하셨습니다 (마 26:25). 그래, 네가 나를 팔 거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럴 때 보통 기대하는 반응이 뭐니까?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나가 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행하러 왔는지 행하라” (마 26:50). 이 때가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을 겁니다. 유다는 이 기회도 못 살리고 대제사장들과 약속했던 입맞춤을 신호로 해 주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잡히신 다음 뒤늦게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였다면 하나님께 먼저 엎드렸겠지요. 아차, 싶긴 했지만 제 영혼의 문제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 돌려주는 게 더 급했습니다. 그저 법적인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 생각한 것입니다. 돈 받은 것보다 훨씬 큰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못 보았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정과 운명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렇습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자초하지 않고는 절대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운명인 것 같지요?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 같은 건 애초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운명이 우리 보기에 다른 점은 운명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오직 우리가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좌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늘 우리의 삶, 자유를 갖고 책임을 지며 사는 우리에게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나간 일이라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무관하게 유다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는 어떻게 지셨나구요? 그런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바가 아닙니다.

사람이 참 교만하지 않습니까? 정작 걱정해야 될 내 일은 신경도 안 쓰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을 내가 걱정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아도 그 길 얼마든지 가실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꿈수 부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내어 주어도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든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몇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일조했습니다. 칭찬을 들었습니까? 마귀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빌라도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의 죄는 더 크다 하셨습니다 (요 19:11).

하나님의 무대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 인생은 무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무대입니다. 우리는 그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연극이 잘 되려면 배우가 연출자의 뜻을 잘 알고 그대로 해 주어야 됩니다. 대사도 행동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배우가 그걸 안 따르고 제 멋대로 하면 연극은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가 세상 연극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도 다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연출가의 지시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연극이 엉망이 될까요? 아닙니다. 연기자가 연출가의 지시를 잘 따르던 그걸 어기고 제 멋대로 하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연극은 아무 문제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순종해도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절대로 애초의 계획에서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종해 하나님의 무대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라합, 베드로, 바나바, 바울 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이지요.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지지만 사람 되어 오셔

서 아버지를 백 퍼센트 순종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거역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집트 술객들이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죄악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거부하여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도 동참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열둘 가운데 하나도 가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뭐라 찬양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어!”

순종할 이유

순종해도 이루어지고 거역해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이루어지고 저래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 받기를 바라십니다. 유다는 안 믿고 거역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되고 영원한 저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일 걱정해 드리지 말고 내 일에 신경 쓰시다.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 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가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금방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롯 유다의 인생을 과거형으로 살펴보니 유다는 결국 운명을 이기지 못한 사람,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었던 제 운명을 좋은 쪽으로 바꾸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금 현재형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 같은 것 안 믿습니다. 우리 앞날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멋지게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린 그저 믿고 순종해 복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 믿고 살면 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열심히 순종하며 살면 사람들이 운명이라 부르는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바꾸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운명에게 지고 만 한 불쌍한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오직 순종 하나로 하나님의 연극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배우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